

노인봉사활동이 여중생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진로태도성숙도, 진로결정수준을 중심으로-

이재철^{1*}, 권낙원¹, 윤성철¹

¹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Effects of a older volunteer activity on the career development of girl's middle school student

-Career attitude maturity, Career decision level-

Jae-Cheol Lee^{1*}, Nak-Won Kweon¹ and Sung-Cheol Yoon¹

¹Dept of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요약 본 연구는 여중생들에게 봉사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 노인봉사활동이 그들의 진로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Y여자중학교에서 인근 노인복지시설에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2학년생 30명이다. 연구도구 및 내용은 진로태도성숙도검사지(CAMI)와 진로결정검사지(CDS)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진로태도성숙도의 5가지의 하위요인(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과 진로결정 수준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첫째, 노인봉사활동이 여중생의 진로태도성숙도의 향상에 부분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봉사활동이 여중생의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단위로 함께 참여했을 경우가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데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로 볼 때, 노인봉사활동을 가족단위로 참여하는 것은 여중생의 진로발달에 도움을 주므로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관련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influences of older volunteer activity. In detail, Administered on girl's maddle school students with the program's purpose on encouragement of positive career development. The study sample was taken from 30 students attending Y girl's middle school in Gyeonggi province, all of whom were regular volunteers at a near by rest home. The contents of the study and apparatus alike incorporated the use of a CAMI and CDS employed as a means of observing the changes before and after older volunteer activity experience in relation to five sub factors and career decision level.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using the SPSS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t appears that older volunteer activity, in general, partial effect of improving a girl's 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Second, it appears that older volunteer activity, improving effect a girl's 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decision level. Third, a girl's 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decision level had positive to advance more in particular in cases where the students' family also participated in older volunteer activity. As observed by the above results, a older volunteer activity experience should be an integral to a girl's 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education program plan as an effective means of enhancing their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decision level.

Key Words : Volunteer activity, Career attitude maturity, Career decision level

1. 서론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시대에 참된 자신의 역할을 찾으려면 치밀하고도 체계적인 진로준비와 다양한 직·간접적 경험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람의 생김새가 제각

각 이듯이 저마다의 적성과 흥미 또한 제각각이므로 수많은 진로의 길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9]. 교육 현장에서도 진로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나가 공감하면서도, 체계적인 지도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만한 자료의 부족으로 많은 어

*교신저자 : 이재철(alltot@naver.com)

접수일 11년 09월 30일

수정일 11년 10월 05일

게재확정일 11년 10월 06일

려움을 겪고 있다[6].

Ginzberg[20]는 진로발달과정을 세단계로 즉, 환상적 단계(6-10세), 잠정적 단계(11-17세), 현실적 단계(18-22)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잠정적 단계는 흥미기(11-12), 능력기(12-14세), 가치기(15-16세), 전환기(17-18세)로 나누어지며, 능력기와 가치기는 중학생의 단계에 해당한다. 특히, 가치기는 직업을 선택할 때에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함은 물론 특수한 직업선호와 관련해 자신의 가치관 및 생애 목표와 함께 평가해 보는 중요한 시기이다.

김충기[8]는 개인의 직업적 소양, 가치, 지식, 기술 등의 습득을 통해 궁극적으로 직업 적성에 부합하는 행동과 판단력을 낳는 과정을 진로발달이라고 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를 진로성숙이라고 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진로성숙의 개념을 연속적인 발달 개념으로 보되, 부분적으로는 각 발달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발달 과업의 수행 정도를 동일한 연령과 비교하여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로 보고 있다[17]. 구체적으로 Super[25]는 진로의식 성숙요인을 목적성, 준비성, 일관성, 독립성, 능력과 흥미의 일치도 등으로 말하고 있다. 종합하면 진로성숙이란 자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스스로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발달 과업 수행 정도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위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아의 이해와 관련해 직업의 조건, 직업관 및 윤리 등 많은 변인들을 폭넓은 활동을 통해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진로발달을 진로결정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연속이라 생각하고 다양한 선택시점에서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4,23]은 미결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유형을 정의하고자 노력하였다. 즉, 진로를 결정한 사람과 결정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진로를 결정했다 함을 일반적으로 현재 상태 이후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으므로 파악한다.

Holland[22]는 진로미결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과반수가 “나는 지금 당장 진로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응했음을 보고했다. 또한 진로에 대해서 결단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느라 진로선택을 연기하는 것도 아니며, 이들은 자신의 진로에 관련된 결정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결정들에 대해서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였다[23].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을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 상황에서의 한 지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진로지도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들[12,15,16]을 살펴보면 집단상담이나 진로체험캠프활동 등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진로

발달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자신에 대한 이해와 정보의 탐색에만 국한되어 있고, 공동체에 대한 기여와 봉사가 자아의 발달과 진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보였다. 또한 정규교육과정 상에서 점점 강조하는 봉사활동과 진로교육을 연계하려는 노력들도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교의 계발활동 시간에 정기적으로 실시한 노인봉사활동이 그들의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계발활동 및 봉사활동과 진로교육을 연계하는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의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노인봉사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진로태도성숙도 발달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 노인봉사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진로결정수준의 발달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3> 실험집단 중 가족단위로 노인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가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결정수준의 발달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Y여자중학교의 계발활동 동아리반 2학년생 30명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였고, 통제집단을 같은 학교의 2학년 1개 학급의 33명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2010년 3월과 11월의 둘째 주에 실시되었고, 분석은 실험집단 전·후 60부와 통제집단 62부에서 특수학급 및 결석학생 제외한 전·후 60부의 설문지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이기학[11]이 개발한 진로태도 성숙도 검사(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와 Osipow[24] 등이 개발한 진로결정검사(Career Deci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진로태도성숙도 검사는 5개의 하위 요인의 총 4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다. 진로태도성숙도의 구체적인 5가지 하위 요인은 첫째, 결정성 요인으로,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고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둘째, 준비성 요인으로 진로결

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셋째, 독립성요인으로 자신의 진로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가를 나타내며, 넷째, 목적성요인으로 개인이 직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얻고자하는 목표 지향성에 대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확신성요인은 진로 선택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진로결정수준 검사는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의사결정의 정도를 측정하는 5점 Likert 척도의 18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부정적 문항들은 역 채점을 하였고, 요인별 문항 점수의 합산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도 및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진로태도성숙도와 관련하여 이기학[11]이 청소년 2,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가지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결정성 .88, 목적성 .75, 확신성 .75, 준비성 .76, 독립성 .75이고, 본 연구의 하위요인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98이다.

진로결정수준검사와 관련해 Osipow[24] 등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Cronbach's α .82로 보고하였고, 고향자[4]는 이를 번안하여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s α .86으로 보고하였으며, 의사결정 유형 검사와의 상관계수를 근거로 검사의 타당도를 입증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0이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문항구성과 신뢰도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설문 문항 구성과 신뢰도

[Table 1] questionnaire's composition & reliability

구분	하위 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Cronbach's α)
진로태도성숙	준비성	1,2,3(R),4,5,6,7,8,9,10,11(R),12(R)	10	.8488
	독립성	13(R),14,15(R),16,17,18,19(R),20(R),21(R),22,23(R),24,25(R),26(R),27(R),28,29(R)	9	.9697
	확신성	30(R),31(R),32,33(R),34(R),35(R),36(R),37(R)	10	.9337
	목적성	38,39(R),40,41(R),42(R),43,44,45(R),46(R),47(R)	8	.9595
	결정성	41(R),42(R),43,44,45(R),46(R),47(R)	10	.9189
진로결정수준	의사결정정도	1,2를 제외한 3~18(모두 R)	18	.9000

* (R)은 부정적 문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하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전·후 차이와 참여조건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t검증을 하였다.

3. 연구진행

3.1 사전 검사 실시

집단 간 동질성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2010년 3월 12일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검사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사전검사 결과

[Table 2] preliminary-test result

구분	실험집단 (N=30)		통제집단 (N=30)		t	p
	M	SD	M	SD		
진로태도성숙도	152.66	12.00	153.20	11.22	-1.075	.283
진로결정수준	53.82	8.20	54.37	6.52	-.546	.592

표 2에 따르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결정수준 검사 모두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동질집단임을 알 수 있다.

3.2 노인봉사활동 실시

3.2.1 노인봉사활동의 개요

노인봉사활동은 세대계층 간 화합과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하여 건전한 공동체문화를 형성하고, 나눔과 봉사의 원리를 실천하며, 스스로의 봉사경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3.2.2 활동의 절차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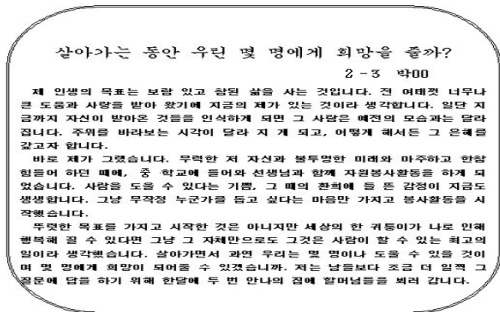
- 접근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에 자리하고 있는 무의탁 노인 보호시설인 '작은 ○○의 집'에 봉사활동에 대한 요청을 의뢰하고 사전답사를 실시
- 월 2회씩 전일제 계발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실시(10회 20시간)하고, 실험집단의 12명은 월 1회 가족단위로 참여(5회 10시간)
- 노인봉사활동 내용은 시설장인 대표목사님의 안내에 따라 무의탁 노인들이 필요(이불세탁, 말벗하기, 교육프로그램 보조, 위문공연활동 등)로 하는 노작 및 위문활동 등으로 실천

- 활동이 끝나면 반성적 사후 토론과 소감문 쓰기를 통해 활동의 의미를 내면화

3.2.3 구체적인 노인봉사활동의 예시



[그림 1] 노인봉사활동의 예
[Fig 1] older volunteer activity's example



[그림 2] 활동소감문 작성 예
[Fig 2] activity report example

4. 결과 및 해석

4.1 진로태도성숙도의 하위요인별 집단 간 차이

<가설 1>의 검증을 위해 노인봉사활동을 최종적 마친 2010년 11월 12일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진로태도성숙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진로태도성숙도 검사 결과 비교
[Table 3] post-test results (comparison of career attitude maturity)

구분	실험집단 (n=30)		통제집단 (n=30)		t	p
	M	SD	M	SD		
준비성	58.25	5.244	36.51	4.45	7.032	.012
독립성	30.88	7.327	27.79	3.34	2.068	.040
확신성	37.92	5.633	35.29	4.32	2.836	.009
목적성	25.71	10.028	20.71	5.17	1.643	.114
결정성	34.63	8.032	31.21	3.02	2.782	.011

**p <.05

하위요인 중 준비성에 있어, 실험집단의 평균이 58.25, 통제집단의 평균이 36.51이며, $t=7.032$ 로, $p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노인봉사활동은 진로태도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준비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성에 있어서는 실험집단의 평균이 30.88, 통제집단의 평균이 27.79이며, $t=2.068$ 로 $p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노인봉사활동은 진로태도성숙도의 하위요인인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신성에 있어서는 실험집단의 평균이 37.92, 통제집단의 평균이 35.29이며, $t=2.836$ 로 $p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노인봉사활동은 진로태도성숙도의 하위요인인 확신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성에 있어서는 실험집단의 평균이 25.71, 통제집단의 평균이 20.71이며, $t=1.643$ 로 $p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봉사활동은 진로태도성숙도의 하위요인인 목적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성에 있어서는 실험집단의 평균이 34.63, 통제집단의 평균이 31.21이며, $t=2.784$ 로 $p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노인봉사활동은 진로태도성숙도의 하위요인인 결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진로결정수준의 집단간 차이

<가설 2>의 검증을 위해 노인봉사활동을 최종적으로 마친 2010년 11월 12일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수준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진로결정수준 검사 결과 비교
[Table 4] post test results (comparison of career decision level)

구분	실험집단 (n=30)		통제집단 (n=30)		t	p
	M	SD	M	SD		
진로결정수준	60.55	10.91	56.66	8.98	2.646	.004

**p <.05

진로결정수준의 검사 결과 실험집단은 60.55, 통제집단은 56.66이며, $t=2.646$ 로 $p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노인봉사활동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참여형태에 따른 차이

<가설 3>의 검증을 위해 실험집단을 월 1회이상 가족과 함께 참여한 12명의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18명의 학생들로 나누어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참여형태에 따른 결과
[Table 5] participation form and consequential result in test

구분	가족참여	개인참여	t	p
	(n=12) M(SD)	(n=18) M(SD)		
진로태도 성숙도	161.87(15.23)	157.86(16.77)	5.010	.010
진로결정 수준	62.29(10.60)	58.32(7.36)	4.042	.018

**p < .05

표 5와 같이 가족과 함께 참여한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p < .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노인봉사활동이 여중생의 진로발달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결론 및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봉사활동은 여중생의 진로태도성숙도의 향상에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앞서 설정한 5가지 하위요인 중 목적성을 제외한 4가지 요인의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는 노작과 위문 등의 봉사활동이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며[1], 건전한 가치관 형성은 바람직한 자아개념 및 진로성숙도의 발달과 깊은 연관이 있다[18,19]는 기존의 연구들과 맥락을 함께하는 부분이다. 둘째, 노인봉사활동은 여중생의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 속에서 스스로가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과 함께 자신에 대한 확신수준이 높아진 것이다. 진로를 미결정한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 Goldberg[21]는 만성적 미결정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의 확신수준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노인봉사활동이 개인의 확신수준을 높여 자연스럽게 진로결정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가족과 함께 노인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참여보다 여중생의 진로발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진로발달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경제적 수준이나 부모의 학력 등과 같은 변인들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가정의 과정적 배경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2,3,7]. 즉

의사소통의 과정과 부모들이 보이는 일상적 행동들이 자녀의 진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14]. 가족과 함께 노인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부모와의 친밀한 대화 속에 그동안 단절되었던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는 진로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작용했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노인봉사활동과 진로발달의 관계에 대해 제한적인 요인들을 양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데 그쳤지만 중학생 시기는 여러 요인들로 인한 가변성이 큰 시기이므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진로교육프로그램을 구안·계획할 때, 노인봉사활동과 같은 나눔 및 세대간 이해의 내용요소를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 계발활동과 봉사활동을 진로교육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Kang jong-goo, Relationship amog self-concepti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chool achievement. Seoul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1986.
- [2] Kang hae-ja, The youth's awareness for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family function. Bus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01.
- [3] Kang hyo-suk, A junior high pupil's awareness for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elf estee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Edu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03.
- [4] Go hyang-ja, A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form and career awareness develop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 thesis for a doctorate, 1993.
- [5] Kim gyeo-hyun, School counseling and school guidance. Seoul: Hakjisa, 2009.
- [6] Kim Bong-Hyan, School career counseling. Seoul: Hakjisa, 2009.
- [7] Kim seon-hee, A depression influence for parent-child's communication. Ewha women's University Edu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09.
- [8] Kim chung-gi, School guidance and career advice. Seoul: Yangseowon, 2000.
- [9] Kim chung-gi, Career education and career guidance. Seoul: Baeyoungsa, 1998.

- [10] Lee gi-hak, A relationship among career attitude maturity, individual characteristic and psychological valuable of high school student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8.
- [11] Lee gi-hak, A tool for validity of career attitude measuring apparatus. Reseach of career-edu, 1997.
- [12] Ryu eun-young, A career search program's influence for high school students,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07.
- [13] Jang seok-min, The study for standardization of career attitude maturity test. Kedi, 1991.
- [14] Jung mi-sook, The relationship among children's communication, self esteem, career maturity.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08.
- [15] Jo suk-min, The study of career maturity and associate variable. Konk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1991.
- [16] Jo yong-sun, The influence of career search program for high school student(career self esteem,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center ready to act. An 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06.
- [17] Kedi, The guide of career attitude maturity test. Research report, PR-91-5-1, 1991.
- [18] Brolin, d. E., Career education : A Functional Life Skills Approach(3rd ed).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Inc, 1995.
- [19] Burger, J. M., Personality(5th ed.). Belmont, CA: Wadsworth/Thomson, 2000.
- [20] Ginzberg, E., Ginzburg S. W., Axelrad, S., & Herma, J. I. Occupational cho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Y: Columbia University, 1951.
- [21] Goldberg, L. R., An alternative "drscription of personality": The 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6), 1216-1229, 1990.
- [22] Holland, J. L.,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Counseling Psychologists Press, 1962.
- [23] Holland, J. L.,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ogy, 24, 404-464, 1997.
- [24] Osipow, S. H. Carney, C. G. Winter, J. Yanico, B. & Koschier, M., The Decision Scale(3rd rev.), Columbus, OH: Marsthon Counseling and Press, 1980.
- [25] Super, D. E.,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The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1953.
- [26] Super, D. E.,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pp. 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 1990.

이 재 철(Jae-Cheol Lee)

[정회원]



- 한국교원대학교 기술교육과 졸업
- 2006년 2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9년 3월 ~ 현재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과정 박사과정 재학 중
- 2000년 9월 ~ 현재 : 중등교사 재직 중

<관심분야>

학교교육과정, 학습모형, 수업설계

권 낙 원(Nak-Won Kweon)

[정회원]



- 1973년 8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심리전공(교육학석사)
- 1984년 6월 :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 교육과정 및 수업전공(Ph.D.)
- 1985년 9월 ~ 현재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교수학습이론, 수업모형

윤 성 철(Seong-chul Yun)

[정회원]



- 2005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9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수료)
- 2006년 8월 ~ 2007년 8월 : University of Cincinnati (Visiting Scholar)
- 2009년 5월 ~ 현재 : Utah State University 교육공학 박사과정

<관심분야>

교육공학, LMS(학습관리시스템), 학습동기